

로마서 7:1 – 7:6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

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2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4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묶어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 로마서 7 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의식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은 4 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혼인, 간음과 관련된 율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비롯되는 정죄함의 영향을 받지 않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 4 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갈라디아 2 장 20 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 장 16 절에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 언제나 남아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5 절에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옛속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도, 죄된 속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율법에 순종하기 보다는 반항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5 절은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율법을 받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6 절에서 ‘그러나 지금은’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옛속성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7:7 – 7:13 율법과 죄의 관계

7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 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9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10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1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12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 7 절 이하에서 ‘나’ 라는 대명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기 보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대표 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7 절부터 10 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인지 몰랐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인식하고 난 뒤에, 죄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죄를 의식하게 되면서 오히려 죄를 더욱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거룩한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 10 절은 결과적으로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게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방법은 제공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율법의 단점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11 절과 12 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지만, 죄가 율법을 통하여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계명/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 장 17-18 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본뜻과 계명 자체를 지키심으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